

공동 2012-9

학자금지원 패널조사의 효율적 모형설계 연구

Model Design for the Panel Study of Student Aid

연구책임자 : 이명진(고려대 사회학과)



공동 2012-9

학자금지원 패널조사의 효율적 모형설계 연구

Model Design for the Panel Study of Student Aid

연구책임자 : 이명진 (고려대학교)
공동연구원 : 이계오 (한국조사연구학회)
공동연구원 : 장안식 (고려대학교)
공동연구원 : 한준태 (한국장학재단)
연구협력관 : 이현정 (한국장학재단)



제 출 문

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

본 보고서를 「학자금지원 패널조사의 효율적 모형 설계 연구」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13. 2. 28

- 주관연구기관명 : 한국조사연구학회
- 연 구 기 간 : 2012.11.01 ~ 2013.02.28
- 주관연구책임자 : 이명진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
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요약

요 약

1. 연구목적과 내용

- 최근에 정책 평가는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자료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.
-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함.
- 한국장학재단 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- 사업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심층적이고 동태적인 정보와 적합한 사업 형태 등 정책제도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
- 이러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자금지원 패널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
- 이에 이 연구는 학자금 수혜 대학생과 비수혜 대학생의 재학 당시 과정과 졸업 이후의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시계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패널조사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이 있음
- 첫째,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, 어떠한 대상을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- 둘째, 패널구축의 목적과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.
- 셋째, 패널조사는 특정한 주기와 유지기간을 갖고 수행됨.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주기와 표본교체 방법이 적절한가를 검토함.
- 넷째, 정책 등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복합 코호트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함.
- 다섯째, 패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, 인력 등에 관해 검토함.

2. 국내외 패널조사 검토

- 2013년 현재 중앙 정부부처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단 등 공적 기관이 운영 중인 패널조사는 총 11개 기관의 25개로 조사되었음
- 국내 패널조사의 대다수는 패널조사를 전담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, 담당자가 패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.
- 국내 패널의 경우 대부분 2001~12년 사이에 본조사가 진행되었으며, 완료 예정 시기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
- 조사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패널조사가 1년의 주기를 갖고 있으며, 표본 교체는 각 패널조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체 주기(1년~무기한)를 보이고 있음
- 1960년대 미국 NLSY, PSID, 1984년 독일의 GSOEP와 네덜란드의 DSEP, 1991년 영국 BHPS, 1993년 캐나다의 SLID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조사가 진행되고 있음.
- 각국의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 조직들은 상당한 수준의 패널자료와 조사 설계와 자료수집 같은 각종 메타자료를 제공하고 있음
- 패널조사 및 분석방법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음
- 조사계획과 수립과정뿐만 아니라 통계품질을 평가하는데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, 다수의 전문가를 비교적 장기간 패널담당자로 배치함.
- 학자금지원 패널조사와 관련성이 높은 조사로 NPSAS, BPS, B&B 등이 있음. NPSAS는 1987년에 시작되었으며, BPS는 1990년에, B&B는 1993 각각 시작되었음.
- 고등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함. 아울러 고등 교육의 자격을 가진 학생 재정 지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.

3. 패널자료 구축 방안

- 1년차에는 학자금 실태와 삶 의식에 관한 대규모 실태조사로서 기본적인 분석 후 대학생과 졸업생을 결합한 패널조사의 구축을 제안함.
- 대학생 실태조사는 층화변수(설립유형, 규모와 학교급 등)별로 목표허용오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출하는 방안 1과 학교단위와 계열별로 필요한 표본크기를 선정하는 방안 2가 있음.
- 방안 1은 층별 95% 신뢰수준에서 목표 허용오차를 5%로 설정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표본크기는 총 42,841명이 산출됨.
- 방안 2는 층 내의 5개 학과 계열별로 동일한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전체 표본크기는 총 68,224명임.
- 대학생활과 졸업 후 사회생활 등 학자금 수혜의 영향 측정을 위해 재학 시절과 졸업 후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패널구축이 필요함.
- 초기에는 재학생 패널과 졸업생 패널을 별도로 구성하지만 재학생 패널은 졸업한 후에도 계속 패널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.
- 패널 구성은 단일 코호트와 복합 코호트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함. 단일 코호트 방식은 패널 유지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, 복합 코호트 방식은 패널 관리의 문제가 존재함.
- 2013년과 2017년에 2개의 코호트를 구축하는데 각 코호트 마다 대학생과 졸업생, 학자금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동시에 포함하고 졸업생을 기준으로 7년 동안 패널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.
- 조사주기는 단일코호트와 복합코호트 공히 홀수 년 본조사, 짝수 년 패널유지 특별조사로 2년 주기로 하고, 패널규모는 단일코호트는 12,000명(재학생 8,000명+졸업생 4,000명)수준이고 졸업하는 조사대상자는 전원을 패널로 유지하여 매년 조사인원이 동일함(패널이탈자 만 감소)
- 복합 코호트는 각 코호트마다 10,000명(재학생 8,000명+졸업생 2,000명)

- 수준이고 졸업생은 50%만 패널로 유지하며 졸업 후 7년 까지 조사하여 재학생인원은 2,000명에서 10,000명까지이고, 졸업생은 2,000명에서 시작하여 9,000명까지 되며 연차별로 변동 있음.
- 예산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다면, 대학생 실태조사와 패널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4. 설문지 검토

- 학자금지원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유사하게 묶일 수 있는 다른 패널조사와 달리 대학생들의 인생단계별 변화와 한국장학재단 사업의 효과성으로 묶일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변화, 학업과 진로에의 변화 등을 구체적인 효과성과 연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함.
- 집단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고 수혜자군-비수혜자군의 비교분석을 기본으로 함.
- 패널조사 항목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성과와 사업효과성 검증을 위한 “효과성” 측정에 초점을 둬
- 효과성 평가(인재육성, 봉사참여, 장학관리, 취업 및 진로) + 학자금 지원 실태 + 삶의 만족도(주관적 웰빙/사회심리적 정서) 개인·가정 영역, 교육·학교 영역, 여가·자기계발, 경제활동 영역 등을 포함함.
- 각 코호트별 종단조사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구성함.
- 생애과정/발전론적 입장에 근거하여, 각 하위영역에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의 포착하고자 함.
- 생애과정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추가, 제외함.
- 졸업생 패널 설문은 대학생 패널 설문을 바탕으로 취업관련 문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.

5. 정책적 제언

- 학자금지원 패널조사의 자료수집, 분석,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함.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적 지원, 현장에서의 자료수집,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, 지속적인 자료의 관리를 맡을 수 있는 전문적인 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함.
- 학자금지원 패널조사를 위한 인력은 최소 3-5명 또는 최대 8-10명을 고려할 수 있음. 인력의 최소 규모는 유사한 규모의 패널을 운영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, 일반적으로 3-5명임.
- 업무 분장은 프로젝트 책임자, 실사담당, 자료담당(자료 처리와 분석/자료 관리 및 지원), 행정담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.
- 패널조사의 운영은 국내외 패널조사 중에서 성공 사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, 적극적인 개방과 참여가 필요함. 특히 한국장학재단 자체의 전문 연구와 분석 기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특히 중요함.
- 이 분야에서 각종 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패널 조사의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- 동시에 개별 연구자가 아닌 조직의 차원에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메타자료의 생성과 보관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.
- 학자금지원 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자가 청년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생애주기로 볼 때 가장 역동성이 높은 세대로 볼 수 있음. 군입대, 휴학, 교환학생, 어학연수 등 패널 유지에 부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패널유지를 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1차년도에 실태조사와 패널구축을 병행할 경우 실태조사의 예산은 약 4억원, 패널조사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예상함.